

일본의 사색시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3

2016 | Vol. 533

교토 료안지

Photo: Kazuhisa Ishikawa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2015년 8월에 모집한 ‘일본문화원 리포터’로 선발된 14명은 일본문화원의 문화행사와 다양한 일본문화를 널리 알리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6년 2월로 활동을 마친 제1기 일본문화원 리포터에게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활동 소감을 들어보았다.

박태일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돌이켜보면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 중, 일본을 가장 가까이서 느낀 건 역설적으로 서울에서였다.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을 수 차례 했고 연락을 주고 받는 일본 친구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나 가까운 나라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축제한마당’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참여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6개월 간의 활동을 찬찬히 돌이켜봐도, 일본 현지를 방문한 경험보다 더 선명하다. 아마도 그 현장에서 느꼈던 한국과 일본 우호의 에너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였다. 그 해가 지나고 다시 100년을 향한 두 나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라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의 슬로건처럼, 한 해 한 해 더 돈독해지는 양국 관계가 되길 바란다.

김지영 아인상사 수출팀 대리

짧고도 길었던 6개월 간의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도 이달로 마지막이다. 리포터 활동을 되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아보려니, 어느 하나 집어낼 수 없을 만큼 모든 활동 하나 하나가 즐거운 기억이었다. 서울과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축제한마당 2015’부터 일본의 고마신사

(高麗神社) 방문, 유카타 시착, 구사쓰(草津) 온천 체험 그리고 한국에서 개최된 일본라면 이벤트 같은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및 후원 행사나 정기 교류회 모두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일본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문화원’ 리포터와 교류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각자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 리포터끼리 교류하며 다양한 일본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일본문화의 매력을 더 많이 전하고 싶다.

이고은 서울관광마케팅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바로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이다.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단순한 여행이 아닌 진정한 문화 체험을 했다. 같이 일했던 일본인 자원봉사자들과 교류하며, 직접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던 점이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 해보지 못한 좋은 경험이었다.

강애진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매달 일본문화원 리포터 블로그에 일본문화를 포스팅하며, 잘 알지 못했던 일본문화를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활동 기간 중,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의 자원봉사자와 리포터로 참여했는데,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해 일본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 되었다.

손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문화’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문화다. 문화를 알리고 전하는 일본 문화원 리포터로서 양국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어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리포터들과 매달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 취재 활동도 했다. 우리의 노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양국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강지원 고려대학교 사학과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은 스스로에게도 일본문화를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리포터 활동을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한일축제한마당’과 같은 양국 시민들 간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강태석 송실대학교 전기공학부

일본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며, 개인 미션과 단체 미션, 일본을 방문해 직접 경험한 일본문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이 지속되어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한다.

김미화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본학과

내가 아는 일본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 자신도 한층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것이 인상 깊다. 전통의상을 입으며 옷의 명칭이나 쓰임새를 물어보는 분, 한국의 사극을 보고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다는 분들과 교류하며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재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부

대학에서 일본어로 일본을 공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을 하며 내가 쓴 글과 사진을 볼 독자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이 생기길 바란다. 일본 문화원 리포터 활동은 끝나지만,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양국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슬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일본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며 일본문화를 좀 더 찾아보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 한층 깊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 문화원 리포터가 2기, 3기로 계속 이어져 많은 분들이 값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일본문화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문혜정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다양한 일본문화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각 분야에 관심이 있는 리포터들과 함께하면서, 평소 접하지 못했던 문화에 관심도 갖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성숙해진 것 같다.

박하림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일본문화원 리포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더욱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디자인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일본의 드라마, 음악, 영화, 음식, 전통, 역사 등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일본을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장원영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역시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참가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축제에 발걸음은 옮겨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리포터 모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좋은 추억이 되었고 보람을 느꼈다. 서로 다른 방면에서 일본문화를 잘 알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난 것 또한 이번 활동의 큰 기쁨이다.



2015년 10월 7일 우호교류협정 체결 10주년 기념비 제막식,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설치

돗토리현 야즈정과 강원도 횡성군의 교류

돗토리현 야즈정과 강원도 횡성군의 교류

강원도 서남부에 위치한 횡성군과 구(旧)하토정(八東町)은 1994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1997년 9월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구하토정을 포함하여 3개 정 의 합병으로 2005년 야즈정이 탄생했으며, 합병 후에도 지금까지 교류를 지속하여, 2005년 12월 야즈정으로 다시 한번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어린이 교류 및 행정연수원생 상호파견, 스포츠 교류 및 민간단체 교류 등을 실시하며 교류를 돈독히 해왔다. 올해로 두 지역의 교류는 구하토정부터 20년째, 야즈정부터 10년째가 된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여, 두 지역의 발전과 더한층 일한양국 우호교류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시야 육성! 일한 어린이 교류 사업

2015년 일한 어린이 교류 사업으로 7월 24일(금)부터 28일(화)까지 한국 어린이 12명이 야즈정을 방문했고, 8월 7일(금)부터 11일(화)까지 야즈정 어린이 21명이 횡성군을 방문했다. 이 교류사업은 '이(異)문화 교류, 학교 생활 체험, 스포츠 교류, 합숙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갖춘 어린이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야즈정과 우호교류협정체결 10주년이라 횡성군수를 비롯한 대표단과 일정을 맞추어, 환영회와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 새로운 일한 교류의 새 시대를 열었다.

야즈정·횡성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10주년 기념 그라운드골프대회

'야즈정·횡성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10주년 기념 그라운드골프대회'가 2015년 11월 11일(수) 하토가와(八東川) 수변 플라자 하천공원에서 개최되었다.

구하토정과 횡성군의 교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이번에 교류단 단장으로 방문한 횡성군 그라운

2015년 7월 26일 돗토리현 야즈정에서 이루어진 기념비 제막식, 요시다 히데토 야즈 촌장(좌), 한규호 횡성 군수(우)



드골프협회장 조태진 씨로 당시 황성군수였다.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교류해 왔지만 돗토리현이 발상지인 스포츠이자 그라운드 골프를 황성군에 보급, 진흥시키기 위해, 5년 전 야즈정 그라운드골프협회 대표자가 황성군을 방문해 교류한 것을 계기로 협회가 발족되었다.

조태진 씨는 “이 날을 위해 팀이 연습을 거듭했고 오늘은 컨디션도 좋아, 기분 좋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 내가 황성군수일 때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20년이 지났지만, 야즈정 주민들은 매우 친절하다.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어 감개무량하다”며 교류의 진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호교류협정 체결 10주년 기념비 설치

2015년 7월 26일(일), 한규호 황성군수를 비롯한 대표단을 초청해, 황성군과 우호교류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표지석을 핫토종합운동공원 내에 설치했다.

요시다(吉田) 정장(町長)은 “야즈정과 황성군이 가족이 된 증표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해 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기념비이기도 하다”고 인사했고, 한규호 황성군수도 “야즈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다. 1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념비 디자인은 야즈정과 황성군이 협의해서 제작했으며, 10월에 황성군에서도 기념비가 완성되었다.

우호 교류의 생각

1997년부터 직원상호파견으로 두 지역 합계 27명의 직원이 현지에서 연수했으며,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또한 일한 어린이 교류사업은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어린이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른 언어와 이문화에 당황했지만 합숙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미래를 위한 교류’를 육성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색이 있는 ‘가카시(허수아비)’ 그룹의 ‘가카시 교류’와 그라운드골프 교류 같은 민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우호 교류의 저변이 확실히 확대되었고, 야즈정에서 황성군을 방문한 사람도 1,000명을 넘어섰다.

야즈정 같이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우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이제 야즈정과 황성군은 ‘가족’ 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두 지역의 우호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일한 양국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야즈정 소개

야즈정(八頭町)은 일본해에 면한 돗토리현(鳥取県) 남동부, 돗토리 현청이 있는 돗토리시와는 자동차로 약20분 거리에 위치한다. 면적은 206.71km², 주위에는 오우기노센(扇ノ山) 등 1,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곳을 원류로 하는 크고 작은 많은 하천이 합류해 핫토가와(八東川)를 이루고, 센다이가와(千代川)를 거쳐 일본해로 흘러 들어간다. 예로부터 농업이 번성했으며, 지금도 벼농사를 중심으로 배, 감, 사과 등 과수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나고 쇼가키(花御所柿)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일본 최고의 단감 브랜드다.

- 돗토리현 야즈정 <http://www.town.yazu.tottori.jp/>
- 문의 돗토리현 야즈정 사무소 기획과
- E-mail yazu-kikaku@town.yazu.tottori.jp • Tel : +81-858-76-0212 • Fax : +81-858-76-0217

(협력: CLAIR, Seoul)



제작한 머그컵을 들고 기념촬영 '우리 모두 다시 만나자'



'야즈정 기라메키 마쓰리'에서 황성군 어린이가 '태권무'를 선보여



출인원에 양팀 선수 모두 함성과 박수를 치며 친목을 다졌다.

면적 206.71km², 인구 18,427명(2011년 국세조사)





〈고지라〉로 시작된 나의 영화 인생

한국에는 자주 오시는지.

한국은 3번 째입니다. 10년 정도 전 가을에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온 적이 있는데, 송이버섯이 맛있어서 많이 달라고 했더니 박스 째 쥐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경주를 비롯한 관광지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그 후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가정요리를 소개하기 위해 촬영 차 왔는데, 그때 배우 남궁원 씨를 만나 한국의 영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갑이라 좋은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지금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원래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영화배우가 될 것을 결심하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무렵 만주에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연극이라는 매력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사진관 아저씨의 권유로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도호(東宝, 일본의 영화사)에 응모하게 되었어요. 최종 합격 후,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영화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데뷔 후 3번째로 출연한 작품에서 첫 주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고지라'였습니다.

다카라다 씨는 '고지라' 관련 저서를 출판한 적도 있는데, '고지라'에 출연하게 된 경위와 다카라다 씨가 생각하는 고지라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고지라'의 주역으로 발탁된 것을 알게 되고, 가장 먼저 떠오른

한국にはよくいらっしゃいますか。

韓国に来るのは3度目です。10年ほど前、秋に友人たちとゴルフをしに来たことがあるのですが、松茸がおいしくて沢山下さいと言ったら、箱ごとくさって驚いたのを覚えています。慶州をはじめとした観光地もたくさん回りました。

その後、ある番組で韓国の家庭料理を紹介するために、撮影をしに来たのですが、その時に俳優のナム・グンウォンさんにお会いして、韓国映画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がありました。すると、実は同い年であることが分かって、良い雰囲気楽しい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

これまで様々な作品にご出演されていますが、元々は大学に進学されるつもりであったとも伺いましたが、どのようなきっかけで映画俳優になることを決意されたのでしょうか。

小学校6年生くらいの時に満州から帰還したのですが、当時は辛いこと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日本に戻ってからは、自分のことは自分で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気付き、自然と勉強にも熱が入っていたようです。その後、自分のことを表現するにあたって、演劇という魅力的な方法があることを知るようになり、ある日、写真屋のおじさんに勧められて、あまり気は進みませんでしたが、東宝に応募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最終合格の後、1年ほど訓練を受け、映画俳優として活動を始めました。

デビュー後、3番目に出演した作品で、初めて主役に抜てきされたのですが、その作品こそが『ゴジラ』だったんです。

宝田さんは『ゴジラ』に関する書籍も出版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が、『ゴジラ』にご出演されることになった経緯と、宝田さんの考えるゴジラとはどういう

생각은 '이제야 슬집 빛을 갈을 수 있겠구나'하는 것이었어요(웃음). 출연 제안을 받고 어떤 영화인지 물어보았더니, 도호가 시리즈로 계획 중인 작품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라 만들 수 있는 반 핵 영화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두 차례의 원폭 투하를 경험한 바 있고, 1954년에는 태평양 비키니환초에서 실시된 핵 실험으로 일본의 제5 후쿠류마루 등 어선이 피폭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지라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도호가 영화를 통해 핵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죠. 사실 고지라는 단순한 파괴자가 아니라 그 또한 해상에서 실시된 핵실험으로 피폭을 당하고, 조용한 바다 속 서식처를 쫓겨난 슬픈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핵의 위협을 충고하기 위해 일본에 나타난 고지라는 인간에 의해 격퇴 당하고 말죠. 그 자신도 슬픈 운명을 지니고 있는데, 그를 죽여 버리는 인간의 업보를 느꼈습니다. 공개 전에 관계자끼리 작품을 감상했는데, 그의 슬픈 운명에 동정심을 느껴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고지라' 시리즈는 꾸준히 사랑을 받아 50년 동안 28개 작품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6개 작품에 출연했는데, 첫 번째 작품은 961만명, 즉 그 당시 일본 인구의 11%에 이르는 사람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인의 양심이 발현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고지라는 어떤 존재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동창 같은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고지라를 영어로 표기하면 'Godzilla'이므로 '성수'(聖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촬영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방랑기' 촬영 중에 짜려보는 연기를 해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몇 번을 반복해도 나루세 감독님께서 오케이를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대사가 있는 장면도 아니라서 뭐가 잘못 되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태프 분들도 '어차피 또 NG겠지'라며, 도중에 대부분의 조명을 켜줍니다. 결국 그날 촬영은 중단되었고, 집에 가서도 생각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촬영 때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선배 여배우인 다카미네 히데코 씨께 뭐가 이상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는 있지만 아까우니까 안 가르쳐 줘'라고 하시더군요. 그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이번 촬영이 끝나면 배우를 그만 두겠다고까지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조명을 켜고 촬영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연기를 시작하자 감독님께서 바로 오케이 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때까지 잔뜩 쌓인 분노 덕분에 요구되던 상대에 대한 밉살스러운 느낌이 연기에 잘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카미네 씨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해 주신 말씀에 감사 드린다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存在なのか, お聞かせください。

最初、『ゴジラ』の主役に抜てきされたと知った時、まず初めに思ったことは、「やっと居酒屋のツケを返せる」でした(笑)。オファーをいただいて、どんな映画なのかと聞いたところ、東宝がシリーズ化を計画している作品で、世界で唯一の被爆国である日本だからこそ作れる、核反対の映画だと説明を受けました。

日本は1945年8月6日の広島, 8月9日の長崎と、2度の原爆投下を経験しており、1954年には太平洋のビキニ環礁で行われた核実験によって、日本の第5福竜丸などの漁船が被爆しました。ゴジラはこれらの歴史的事実を背景に、東宝が映画を通じて核廃絶のメッセージを伝えるために、誕生したのです。実はゴジラは単純な破壊者ではなく、彼自身も海上で行われた核実験によって被爆をし、静かな海底のすみかを追い出された悲しい運命を持った存在なのです。しかし、皮肉にも、人間に核の脅威を警告するために日本に現れたゴジラは、人間によって撃退されてしまいます。彼自身も悲しい運命を持っているのに、彼を殺してしまう人間の業を感じました。公開前に、関係者たちと作品を鑑賞したのですが、彼の悲しい運命に、同情をし、涙を禁じ得ませんでした。

その後も、『ゴジラ』シリーズは愛され続け、50年の間に28作品が制作されました。私は、そのうちの6作品に出演させていただいたのですが、最初の作品は961万人、ですから、当時の日本の人口の11%に当たる方々にご覧いただきました。私は、このことを、日本人の良心の表れ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私にとって、ゴジラがどういう存在なのかと、よく聞かれるのですが、私はいつも「クラスメートのような存在」と答えています。また、ゴジラを英語で表記すると'Godzilla'なので、「聖獣」と呼ぶこともあります。

撮影中にあった面白いエピソードや特に記憶に残っていることはありますか。『放浪記』の撮影中に、睨む演技をしなくてはならないシーンがあったのですが、何度繰り返しても、成瀬監督がOKを出し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特にセリフのあるシーンでもなかったので、どこを間違えたのか理解できずにいると、スタッフさんも「どうせまたNGを出すんだろう」と思いはじめ、途中で照明のほとんどが消えてしまいました。結局、その日の撮影は中断となり、家に帰っても気になってご飯が喉を通りませんでした。翌日、撮影する時も、同じ状況が続いたので、先輩の高峰秀子さんに何がおかしいかと聞いてみたんです。すると、「分かっているけど、もったいないから教えてあげない」と言われました。その時は腹が立って、今回の撮影が終わったら俳優を辞めてやるとまで考えたのですが、「最後に照明をつけて撮影してください」とお願いして、演技を始めると、監督がすぐにOKを出してくれました。どうやら、それまで蓄積されていた怒りによって、相手に対する憎しみがその時の演技に最もよく表れたようです。おかげで、自分の力で乗り越えることがどういうことなのか、分かった気がしましたね。その後、高峰さんとお話しする機会があったのですが、あのときの言葉に感謝していると伝えると、泣いて喜んでくださいました。

개인 취향과 음식 문화

일본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재팬 푸드 페스티벌. 이번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페스티벌 참가 업체 관계자 가운데, 모스버거(モスバーガー)의 키시다 타쿠야(岸田卓也) 씨, 카쯔야(かつや)의 가토 마코토(加藤誠)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 식문화의 차이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모스버거



한국에 진출한 계기는.

2011년 신규사업을 모색하던 한국기업이 모스버거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회사로 연락을 취해 왔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거주했던 사람이나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일본으로 여행 갔던 분들이 모스버거를 먹었다는 블로그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모스버거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

한국에는 해외영업을 맡게 된 2011년 10월부터 출장으로 오다가 2012년 2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우선 간판을 읽을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일본어로 바꿔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음식점이 많아 경쟁이 심하겠다는 인상도 받았지만, 그만큼 기회가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으로 일본보다 햄버거를 훨씬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식사로 즐기는 고급 햄버거와 간식 개념의 패스트푸드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중간 단계가 없는 것 같다. 모스버거는 그 중간층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스버거는 햄버거 메이커라 순수한 일본 음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미

국에서 태어난 식문화를 일본식으로 어레인지 해서 한국에 가져왔기 때문에 일본 음식의 매력을 소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탄생한 햄버거라는 식문화를 일본식으로 해석한 것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햄버거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리야키버거나 라이스버거 같은 메뉴를 개발하는 등 햄버거에 담긴 일본 식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모스버거의 특징은 무엇이며 한국 진출을 위해 주력한 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레시피를 쓰고 있다. 하지만, 같은 소스도 설탕과 소금 등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맛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빵도 똑 같이 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본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다. 한국 독자 메뉴로 오코노미야끼라이스나 남반치킨 같은 일본의 계절이나 지역 한정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음식이나 식문화가 반영되어 있어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식사대용으로 일본보다 큰 크기의 와규 버거나 고급 식재료가 들어간 메뉴 등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한국에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점포를 늘려갈 예정이다.



한국에 진출한 계기는.

일본 최고의 돈까스 체인점으로 일본 국내시장 확장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아시아 진출의 출발점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한국 시장이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80년대부터 수많은 외식 업체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아시아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우선 공략하기 어려운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

1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거리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높은 건물이 훨씬 많아졌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식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다. 특히 생마늘과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비해 야채를 덜 먹는 것 같은데, 피부가 좋은 걸 보면 아마도 마늘과 김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웃음)

한국에 매장을 내면서 주력한 점.

일본 손님과 한국 손님의 취향이 달라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다. 우리는 고기를 숙성시켜 제공하는 에이징 기법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생고기가 들어있다는 분들이 많아, 굽기 전후의 고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다. 또한 일본에서처럼 일부러 고기에 비계를 남긴 채 제공했더니, 떼고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없애기로 했다. 돈까스를 자르는 방식도 일본과 다르다. 처음에 일본 점포와 같은 방식으로 돈까

스를 세로로만 잘라서 제공했더니, 가위를 달라는 주문이 쇠도해서 가위를 3개에서 12개로 늘렸지만, 결국에는 가운데를 가로로 한번 더 잘라 제공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가능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물류에 드는 비용이 비싼 편이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이 한정적인데, 식재료 공급 경로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 조건에 맞는 돼지고기를 찾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적도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음식이 인기를 얻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 번째 요인은 출판물이나 문화교류 등으로 일본문화를 가깝게 여기던 세대가, 이제 소비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비생활을 즐기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두 번째 요인은 이탈리아 요리, 중국 요리, 베트남 요리 등 다양한 외식 산업 중 하나로 일본 요리가 확실하게 자리잡은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 일본식 이자카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일본음식의 주목도가 높아진 것 같다.

앞으로의 전망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가운데 전 점포 흑자인 곳은 카쓰야 뿐이다. 10년 후 55개 점포를 목표로 올해 적어도 2~3개 점포를 늘리고 내년 이후에도 3~5개씩 점포씩 늘려 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에서 개최되는 캠페인을 한국에서도 동시에 개최하여, 대상이 되는 상품을 한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드실 수 있게 하고 싶다. 빠르면 4월 개최하는 캠페인부터 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산악 고원 관광지

나가노현



신록과 잔설이 빛나는 가미고치

혼슈(本州)의 거의 중앙에 자리한 나가노현(長野県)은 도쿄(東京)나 나고야(名古屋) 같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또한 2015년 3월 호쿠리쿠신칸센(北陸新幹線)이 연장되어 도야마(富山)나 가나자와(金沢) 등 호쿠리쿠 지방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나가노현은 ‘일본의 지붕’이라 불리며, 사방이 북알프스, 남알프스, 중앙알프스 등으로 둘러싸인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산악 고원 관광지’다. 매년 많은 한국 분들이 나가노현을 방문하여 등산, 트레킹, 스키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다. 나가노현은 ‘산악 고원 관광지’인 동시에, 남녀 모두 일본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긴 ‘건강 장수’ 현이다. 나가노현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선선한 기후를 살린 고랭지 채소, 밤낮의 기온차를 활용한 고당도 사과와 포도로 대표되는 과일산지로서 유명하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채소 소비량에서 일본 최다인 점이 건강 장수의 비결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현 내 곳곳에는 온천이 많은데, 처마가 맞닿아 있는 온천거리에서부터 산 속의 외딴 온천까지 그 수는 2012년 3월 말 현재, 225여 개나 되며, 뽕안 백색 온천탕이나 매끈매끈한 온천탕 등 다양한 온천 수질을 즐길 수 있다. 온천이 많은 나가노현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탕도 많은데, 2012년 3월 말 현재, 그 수가 605개로 일본에서도 가장 많다. 등산과 스키 등으로 지친 몸의 피로를 풀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나가노현의 관광지 가운데, 특히 한국 분들에게 추천하는 장소를 몇 군데 소개한다.

가미고치 · 노리쿠라다케

가미고치(上高地)는 연간 150만 명이 찾는 일본 굴지의 산악 경승지다. 맑고 깨끗한 가미고치 아즈사가와(梓川)에 걸린 다리인 갓빠하시(河童橋)와 그 배경에 펼쳐진 산들의 웅장한 자태, 오롯이 자리한 연못인 다이쇼이케(大正池)와 묘진이케(明神池) 등이 산과 초록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가미고치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싱그러운 경치를 즐기며 트레킹과 캠핑을 즐길 수 있다.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하순까지 동절기는 폐쇄된다. 또한 가미고치 인근의 노리쿠라다케(乗鞍岳)는 3,000m가 넘는 산이지만, 표고 2,700m까지 버스로 이동 후, 내려서 1시간 30분이면 3,026m의 정상에서 절경을 즐길 수 있다.

온천욕을 즐기는 스노 몽키



스노 몽키(Snow Mon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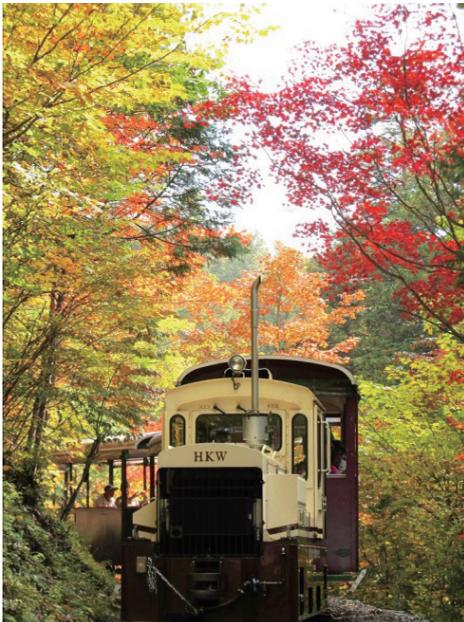
나가노현 북동쪽 야마노우치정(山ノ内町)에 있는 지고쿠다니 야생 원숭이공원(地獄谷野猿公苑)에서는, 야생 원숭이의 생태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 원숭이가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Snow Monkey’라고 해서 설경 속에서 온천욕을 하는 귀여운 원숭이의 모습이 전세계의 이목을 끌며,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다테야마구로베 알펜루트 '눈의 오타니'

다테야마구로베 알펜루트

다테야마구로베(立山黒部) 알펜루트는 나가노현과 도야마현을 잇는 산악 지역을 지나는 관광 루트다. 4월 개통 후에, 최고 지점인 무로도(室堂) 부근에는 높이 20m의 눈 벽이 만들어져, 그 사이를 걷는 '눈의 오타니 워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눈 벽은 6월 하순 무렵까지 볼 수 있다. 또한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다. 구로베담은 높이 186m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댐으로 유명한데, 4월부터 10월까지 관광 방류를 실시하여 맑은 날에는 무지개가 생긴다. 박력 있는 물줄기와 아름다운 무지개가 방문객을 매료시킨다.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 동절기는 폐쇄된다.



아카사와 자연휴양림 삼림철도

쓰마고주쿠 · 아카사와 자연휴양림

나가노현 남서부, 기후현과 맞닿아 있는 쓰마고주쿠(妻籠宿)는 에도(江戸)시대에 에도(현재의 도쿄)와 교토(京都)를 잇는 나카센도(中山道)를 따라 조성된 역참마을로 번성했다. 시대가 변해 철도와 도로가 새로 생겨나자, 쓰마고주쿠는 역참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지만, 에도시대 역참의 모습을 고스라히 간직하고 있는 거리 풍경이 재평가 되어 보존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에도시대의 시가지 풍경이라는 귀중한 재산이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쓰마고주쿠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카사와(赤沢) 자연휴양림'은 삼림욕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짙은 신록의 자연림 속에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상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부지 내를 달리는 약 2km의 삼림철도로 예전에는 별채한 나무를 운반했지만, 지금은 그 소임을 다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태운 채 숲 속을 달리고 있다.

국보 젠코지

나가노시에 있는 국보 젠코지(善光寺)는 약1400년 전에 건립된 절이다. 젠코지는 종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찰로서 예로부터 일본 전역에 알려진 곳이다.

젠코지를 참배할 때 '오카이단메구리(お戒壇巡り)', 즉, 승려가 계를 받는 단을 돌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본당의 본존 아래, 어둠 속을 더듬어 부처님의 분신인 자물쇠를 만지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극락왕생을 약속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젠코지 문젠(門前) 거리에서는 메밀국수나 오야키(おやき, 밀가루 반죽에 호박, 팥 앙금, 야채 등을 넣어 굽거나 찐 음식) 같은 나가노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고, 토산품 가게가 늘어서 있어 식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에도시대의 모습을 남긴 쓰마고주쿠

국보 마쓰모토성

국보 마쓰모토성(松本城)은 약 500년 전에 축성되었으며 현존하는 천수각(외관 5층, 내관 6층)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마쓰모토성은 특징적인 검정색을 띠고 있어 까마귀 성(烏城)이라고도 불린다. 봄에는 부지 내의 벚꽃과 배경이 되는 알프스의 잔설이 아름답게 빛나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한다.

국보 마쓰모토성



끝으로

이번에는 나가노현의 수많은 관광지 가운데 극히 일부를 소개했다. 나가노현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나가노현 공식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산악 고원 관광지, 역사적 건축물, 건강 장수의 기초가 되는 맛있는 채소와 과일 등 나가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다.

• Tel +81-26-235-7252 • E-mail go-nagano@pref.nagano.lg.jp • HP <http://www.go-nagano.net/ko/>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규슈의 사케



규슈(九州)는 일본 열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37번째로 큰 섬이다. 나가사키현(長崎県)·사가현(佐賀県)·후쿠오카현(福岡県)·오이타현(大分県)·구마모토현(熊本県)·미야자키현(宮崎県)·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7개 지방공공단체(현)가 있으며, 7현의 총인구는 1300만명 정도다. 예로부터 일본에 전해지는 신화나 전설이 숨쉬는 신사와 불각이 있으며, 서양건축 등 국제교류에 의한 이국문화도 남아있는 독특한 역사가 있다. 남북으로 많은 섬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가고시마현 야쿠시마(屋久島)를 비롯해서 변화무쌍한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고 있다. 또한 규슈에는 수많은 화산이 있으며, 그 덕분에 많은 온천지가 존재한다. 특히 오이타현의 온천 용출량은 일본 최고(2010년)다. 또한,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는 화산분출물에 의한 '시라스 대지(シラス台地)'가 펼쳐지고 있다. 시라스 대지는 논농사가 적합하지 않아 축산과 밭농사가 활발하다. 가고시마현의 고구마 생산량(2010년)은 일본 최고이며, 돼지, 닭, 외구 사육수도 일본 최고로 다음이 미야자키현(2011년)이다.

구로시오·쓰시마 해류(黒潮・対馬海流)가 가져온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어패류, 수많은 섬들이 만들어내는 웅대한 자연, 화산의 혜택을 받은 여러 효능을 지닌 온천지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규슈로 한국에서도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규슈는 자연이 풍요로운 하나의 큰 섬이며, 이 안에서 각 지역의 독특한 술 문화를 형성해 왔다. 남부 규슈나 나가사키현은 예로부터 인접 국가와의 해양 교류가 활발하여, 태국과 중국에서 전해졌다는 증류주(소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현재도 다수 존재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소주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본 유수의 곡창지대인 북부 규슈에는 일본술을 빚는 양조장이 많으며, 최근에는 이 뛰어난 기술로 만든 사케가 일본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술

후쿠오카현은 효고현에 버금가는 '야마다 니시키(山田錦)'의 산출지다. 질 좋은 쌀과 지쿠고가와(筑後川)의 풍요로운 물 덕분에 서일본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양조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로 알려진 'IWC(International Wine Challenge)' 2013 SAKE 부문에서 일본의 235개 양조장, 583개 품목 가운데 야메시(八女市)의 일본술 '기타야 고쿠조 다이긴조(喜多屋 極醸 大吟醸)'가 최우수상인 'CHAMPION SAKE'를 수상하며, 높은 기술력을 세계로부터 인정 받았다.

사가현의 술

규슈에서 일본술의 수요가 가장 많은 사가현. 현 내에서 사가현산 술의 점유율이 80%를 넘는 등 지역 성향이 매우 강한 것도 특징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인 'IWC(International Wine Challenge)' 2011 SAKE부문에서, 가시마시의 '나베시마 다이긴조(鍋島 大吟醸)'가 최우수상인 'CHAMPION SAKE'를 수상했으며, 이후 사가현의 여러 양조장 사케가 해외대회에서 차례로 상을 받는 등 일본 안팎에서 주목 받는 양조장이 다수 존재한다.

나가사키현의 술

나가사키현에는 일본술 양조장도 많은데, 보리 소주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 나가사키현 이키(壱岐)섬이다. 은은한 보리 내음이 물씬 나는 품위 있는 맛은 어떤 요리에도 적합하며,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5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이키의 보리 소주는 세계무역기구의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에서도 인정 받았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지역의 물건에만 주어지는 칭호로서 세계적으로는 위스키의 '버번'이나 '스카치', 와인인 '보르도'와 '샹파뉴'가 여기에 속한다.

오이타현의 술

보리 소주하면 오이타현이라고 할 만큼 '오이타 보리 소주'는 일본에서도 유명하다. 나가사키현 이키의 보리 소주가 쌀로 만든 누룩을 쓰는 반면, '오이타 보리 소주'는 보리 누룩을 사용한다. 보리를 100% 사용하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가고시마현



고, '감압 증류' 방법으로 증류하기 때문에 한층 산뜻하고 깔끔한 목 넘김과 품위 있는 향기가 특징이다.

또한, 오이타현은 사케 주조 역사도 깊고, 약 40개의 양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마모토현의 술

일본술과 소주가 공존하는 지역색을 띠고 있지만, 일본 3대 급류의 하나인 구마가와 유역은 쌀 소주, 현 북부는 일본술의 산지로 구분되어 있다. 에도시대부터 손꼽히는 곡창지대로서 쌀을 사용한 쌀 소주가 보급되었다. '구마 소주(球磨燒酎)'도 현재 WTO의 TRIPS협정에 의거하여 세계 브랜드로 인정 받고 있다. 또한 술 제조 방법에 대한 탐구 역사도 깊어 '구마모토 효모'의 발견이나 각종 제조 기술의 혁신이 이후 긴 조주(吟醸酒)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야자키현의 술

미야자키현은 규슈에서 가고시마현에 버금가는 고구마 산지로서, 가고시마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고구마 소주가 많이 제조되고 있다. 또한 오이타현에서 가까운 미야자키현 북부에서는 보리 소주, 중앙 및 서부에서는 쌀 소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고구마 소주의 연간 출하량은 오랫동안 선두를 지킨 가고시마현을 제치고 일본 최고(2015년)다.

또한, 특산품인 메밀을 원료로 하는 '메밀 소주'도 가벼운 맛과 깔끔한 목 넘김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가고시마현의 술

가고시마 소주는 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 쌀과 곡물을 이용한 소주 제조가 한창이었지만, 화산재로 형성된 배수가 좋은 시라스 대지는 쌀 생산이 어려워, 18세기에 전래된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이모 소주(芋燒酎)'가 현재까지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축산업이 번성한 가고시마현에서는 흑돼지나 토종 닭 같은 브랜드 식재료와 함께, 식중주(食中酒)로서 일상적으로 고구마 소주를 마시고 있다. 가고시마현의 '사쓰마 소주(薩摩燒酎)'도 WTO의 TRIPS협정에 인정 받고 있다. 또한 아마미 제도(奄美諸島)에서 만들어진 흑설탕을 원료로 하는 '고쿠토 소주(黒糖燒酎)'도 미용에 좋다고 해서 인기가.



사진을 통해 재발견한 Cool Japan, 멋진 일본



주한일본대사관이 선발한 한국대학생 등 97명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정부의 청소년 교류 사업인 'JENESYS 2015'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도쿄(東京), 나가사키(長崎), 교토(京都), 오사카(大阪)를 방문해 일본 대학생과 교류하고 홈스테이, 라쿠고(落語)와 노(能) 같은 일본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본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Cool Japan 리포터'로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각자가 발견한 일본의 매력을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나는 이번 겨울방학에 에세이 제출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는 주한일본대사관의 Cool Japan 리포터 모집에 응모, 합격하여 생애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다. 두 번째로 만난 일본은 처음보다 더 낮익었고, 반가운 모습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동양인 얼굴, 삼시세끼 먹는 쌀밥에 젓가락을 권 모습까지... 여러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꼈다. 그야말로 일본은 친근한 이웃나라다. 이제는 일본어 간판을 봐도 낯설지 않고, 편의점에 가도 떨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9박 10일간의 'JENESYS 2015' 일본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던 일본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일본 특유의 색깔이 담긴 풍경을 직접 담아보고자 이번 Cool Japan 리포터의 사진담당까지 맡았다. 때문에 나의 카메라는 일본을 바라본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카메라에 담긴 일본의 모습은 우리와 매우 닮았지만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와 같은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그 모습은 달랐다. 한국에서는 쇠 젓가락을 주로 쓰지만 일본에서는 나무 젓가락을 사용했다. 홈스테이에서도 나무 젓가락을 주었고, 레스토랑에서도 쇠로 만든 식기는 포크와 나이프뿐이었다. 젓가락으로 상징되듯이 일본은 우리와 닮았지만, 엄연히 이들과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홈스테이를 위해 머물렀던 미나미 시마바라시(일본 방문 프로그램 중에는 2박 3일간의 홈스테이 일정이 있어, 일본지방도시의 가정집에 머물며 일본인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지역의 화산 폭발로 인해 문힌 잔해들과 사건을 기념, 보존하며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였다.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이 같은 기록을 남겨두고,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프로그램 중에는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노(能)'와, '라쿠고(落語)' 체험을 통해 일본이 오랜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나가사키 카스텔라' 같은 지역 명물을 보면서 고품질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일본문화는 더욱 심오했으며, 일본인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도 느낄 수 있었지만, 엄연히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새삼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어를 공부한지 5년,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나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일본의 매력을 알리는 Cool Japan 리포터로서, 일본이란 나라를 계속해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 반대편에도 정말 매력적인 나라가 많지만, 일본은 우리와 가까우면서도 매우 다른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익숙한 나라라 우리가 그동안의 문화를 놓쳤다고 느꼈다.

Cool Japan 리포터로서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일본을 접해 본 사람들에게도 참여를 권하고 싶다. 나처럼 몰랐던 일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15기 일본무용교실 & 제9기 샤미센교실 수료공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매월 2회, 1년 코스로 진행되는 일본무용교실과 샤미센교실 수료공연이 3월 9일 개최된다. 일본무용교실은 2000년부터 하나야기 순토 선생의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샤미센교실은 2007년부터 이마후지 다마미 선생의 지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수료공연에는 일본무용교실에서 23명, 샤미센교실에서 24명이 참가하며, 하나야기 순토 선생과 이마후지 다마미 선생의 특별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무료.

일시 3월 9일(수)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일본거문고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정미령 010-7244-6294



영상과 물질-1970년대 일본의 판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70년대 일본의 현대판화를 집중 조명하는 <영상과 물질 - 1970년대 일본의 판화>전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경기도미술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1970년대 일본 판화는 '영상'과 '물질'의 주체적 표현을 통해 표현 영역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켜 현대미술의 동향 형성에 깊이 관여하며 성장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과 '물질'이라는 2부 구성으로 1970년대 판화 표현의 주요 경향을 소개하며, 판화에 의해 길이 열린 1970년대 일본 현대미술의 동향을 이우환(李禹煥) 작가를 비롯한 14명의 작품 50점을 소개한다. 특히 일본 특유의 판화인 우키요에의 복각화(復刻畫)도 함께 전시되어, 전통과 현대의 일본 판화를 한자리에서 보면서 일본현대판화에 담긴 실험 정신과 자취를 감상할 수 있다.

일시 ~ 4월 3일(일)까지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주최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경기도미술관 **문의** 031-481-7000



ISPS HANDA

제15회 일한 대항 중고등학생 골프 선수권대회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골프 교류인 '일한 대항 중고등학생 골프 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일본고등학교 골프연맹과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이 선발한 24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선수가 출전해 매치플레이로 일한 대항전을 펼친다. 참가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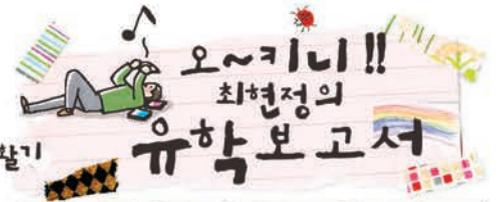
일시 3월 26일(토)~3월 31일(목)

장소 Gunsan Golf & Country CLUB

주최 일반사단법인 일본고등학교 골프연맹,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
일반사단법인 국제스포츠진흥협회(ISPS)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 이승현 010-3245-5522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살기



지역주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남녀노소 모두 오가는 만화 운동장이 있다. 교토시의 교토 국제 만화박물관으로 건물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때 세이카 대학 도서관 사서였고 지금은 만화 박물관에 근무하는 와타나베 씨가 버선발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어서와요~ 최상!

교토 국제 만화박물관은 1869년 세워진 다쓰이케 소학교(龍池小学校) 건물을 활용했다고 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쇠퇴 위기에 있던 교토 사람들은 주민 자치조직을 만들고, 마을마다 교육시설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다쓰이케 소학교다.

옛부터 교토는 자치적으로 데라코야(寺子屋)를 만드는 등 교육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곳이죠. 다쓰이케 소학교는 교토부(府)나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지역 주민들의 기부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아하!!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아는 개여있는 분들이셨군요. 굉장해요.

와타나베 씨의 설명에 의하면 학교 내에 주민집회실이 있었고, 마을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다쓰이케 소학교 추억의 역사 사진

아마도 운동회는 마을의 큰 축제였겠죠~

어린이 인구 감소와 함께 학생수도 급감하면서 1994년 인근 4곳의 소학교와 병합하며 학교를 옮겼지만, 1995년 폐교에 이른다.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중심지가 역사속으로 사라졌군요~

그런데 반갑게도 교토시와 세이카 대학의 공동사업으로 만화 박물관이 기획되었죠~.

교토 세이카 대학(京都精華大学)은 일본대학 최초로 만화학과를 두고 일본의 만화교육과 연구를 리드하고 있으며, 나의 모교이기도 하다.



주민 소유의 공립학교를 만화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의견에 반감을 느낀 지역주민도 있었대요. 하지만, 다쓰이케 소학교의 역사와 미담 등을 만화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등 만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의 결과, 지금은 누구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지역 축제에 협력하는 장소가 되었답니다.



와~

京都国際マンガミュージアム KYOTO INTERNATIONAL MANGA MUSEUM

2008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나라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